

## 郡立 圖書館을 이룩한 나의 境遇

李 達 炯

### ◇머 리 말◇

여러차례에 걸쳐서 圖協 成幹事에서 郡立圖書館을 設立한 經緯와 그에 따르는 陰路를 克服한 숨은 勞苦를 歷歷히 手記로 적어달라는 原稿請託을 받고서도 이리저리 망서리고 글 쓰기를 廻避하여 왔다. 其理由는 첫째로 내가 이루었다는 坡州圖書館이 設立經緯로 보아 日淺하고 널리 紹介할만한 아무런 業績도 參考도 되지 못하겠기때문이다. 둘째로는 圖書館業務에는 門外漢이 내고장의 文化向上을 이루워 보겠다는 信念의 發露로써 자그마한 圖書館 하나가 마련된 한 事實이 그리 크게 자랑거리가 되겠는가하는 마음에서였다.

오직 圖協側의 意圖나 내가 글 쓰기를 決心한 衷情은 地域社會 文化發展을 이룩하려고 努力하시는 同志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이에 더한 多幸이 없겠다. 바라건대는 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郡單位의 圖書館이 續出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 ◇圖書館이 생긴 동기◇

우리나라 人口의 62%에 該當하는 農漁村 住民이 現代의 文化惠澤을 입지 못하고 있음이 슬길수 없는 現實이며 農漁村이 아닌 比較的 文化施設을 具備하였다든 都市이더라도 先進文明國에 比할바 못되는 後進國으로서, 經濟, 社會, 文化面等に 결

쳐 惡循環은 繼續되어 보다 나은 來日을 期待키 어려운 韓國의 “디렘마”는 永遠히 우리땅에서 사라질수 없을 것인지, 오늘날 地球上의 樂園國家로 불리워지는 瑞典, 丁抹等이 距今 100餘年來로 그나라의 運命을 慨嘆하며 나라의 繁榮을 피하고저 뜻있는 “달카스”나 “구른트빗히”는 自己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의 앞장에 나서서 先驅的으로 地域社會 開發을 爲한 開拓者였음을 잘 알고 있는바이다. 이들과 같은 犧牲의 奉仕者의 開拓精神은 그나라의 氣風으로 國民性化하여 勤勉하고 誠實하여 그나라 國民所得은 增加一路에 오르고 只 今은 世界農業國家의 標本國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더욱 이나라의 長點을 본받을 點이 많이 있는것이다.

그중에서도 地域社會開發學校制度和 文教政策(例 農閑期 開學, 國定教科書 採擇없이 講義聽講後 專門의工夫는 地域社會單位의 圖書館에서 研究함) 등은 참으로 많은 關心을 모으게 한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現實을 直視하던 低開發國의 文化的 後進性을 克服하기 위한 方途로서 現實에 對한 失望으로 萎縮될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文化向上을 促進시켜야만 하겠다는 뜻을 세워 只今으로부터 5年前에 鄉里에 다 보잘 것 없는 남은 軍用天幕으로 흙벽돌 假建물을 部落中心地 野山 넓직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섭에다 세우고 자그마한 看板을 내세웠던것이다.

아마도 이곳이 우리고장에 圖書館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集會所가 되었으며 不遇한 家庭環境에서 向學에 불타 에타는 가슴을 부들켜 안고 갈바몰라 彷徨하던 2,000餘名の 어린(中·高校過程) 새싹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며 日曜學校로서 그들을 善導하는 殿堂이었던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국민학교 尙卒業者로부터 40세가 넘기에 이르기 까지며 隣接되어있는 楊州, 高陽郡에서도 受講生은 모여들었다. 日曜學校의 教師는 自願指導로 그들은 無報酬로 奉仕하였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職場에서 받는 俸給들을 털어 넣기도하면서 얼마간 해는 바뀌었다. 이곳을 가르켜서 福祉學園이라 부르고 사람들은 이와같은 일을 社會教育事業이라 부름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事業은 郡內에도 여러곳에서 일어나기 始作하여 只今은 4個面에 分敎場을 마련하였다.

自願指導教師들은 남은 월판에다 知識을 傳達기 위한 白墨글씨만을 쓰는데 그치지 않았으며 배우는 사람들 또한 그러하였다. 指導教師들은 제各己 自辨으로 良書를 購入하여 다간 돌려가며 읽히기를 始作 後엔 學級對抗처럼 善意의 競爭으로 學級文庫로 發展해갔다. 勿論 學級文庫로서의 圖書數는 各其 20~30餘卷式에 不過하였지만 學生들의 熱誠에 依하여 學級文庫의 冊數는 漸漸增加하였던 것이니 이는 벼이삭 즐기며 面單位 또는 里洞單位的 奉仕班組織으로 共同作業을 통해 所得한 賃金은 文庫購入에 바쳤다.

學級文庫가 胎動된지 1년도 未及하여 學級別 文庫는 統合 福祉文庫라는 書架에 500餘卷의 책은 整理되어 學園事務室

에 자그마한 圖書室의 구실을 하였다.

〈閱覽도하고 貸出도하고 簡單한 分類도 하여서……〉

貸出圖書는 1週間에 1원의 貸出料를 有料制度로 하였던바 農村에서 책을 보고파하는 知識層에 있는 몇몇사람들은 일부터 찾아와 鼓舞的 讚揚과 圖書購入에 보태쓰라고 贊助金을 弄고가는 志도 있었다. 教師나 學生들은 自己들의 힘으로 이룩한 조그마한 일이 漸次 커져가리라는 希望과 그의에도 여러外郡 人들로부터 關心을 모으게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 열심히 發展策을 研究하였다.

落照가 黃金빛 別판을 한층 아름답게 물들여준 어느 日曜日 學習指導를 마친後 學級代表 7,8名을 모아놓고 連席會議가 벌어졌다. 論議 끝에 奇抜한 着想에 共鳴하여 實踐키로 合議 面洞別 및 面單位的 競爭으로 “싸리비 모으기”는 始作되었다.

때는 1961年 10月 初旬

싸리비의 目標量은 3,000자루

期間은 讀書週間까지인 것이다.

다음은 當時의 日記帳의 一句節을 通하여 當時의 喜悲交叉를 想起시켜본다.

10月8日 日曜日 天氣 晴

福祉學園의 天幕門은 예나 다름없이 오늘도 열렸다.

學生들의 出席率은 漸漸 줄어들었다. 어져된 일인지 알수가 없다. 우리 教師陣의 指導力量이 不足하여 倦怠를 誤發한 것이나 아닐런지 아니면 苦難을 勘耐키어 려워 테카단이 습化하여 學業의 中途拋棄가 아닐런지 都是 窮今하다.

出席學生에 依한 缺席者의 代辯은 大概가 秋收農繁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모아진 싸리비 100餘자루를 보니 龍頭蛇尾格이될

가 念慮되며 “싸리비 모으기” 競爭이 逆効 果를 招來하여 缺席者를 續出し감이 아닐런지 進退兩難이다.

10月15日 日曜日 天氣 晴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기 그지없다. 잔디위에 누워 限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幻想에 잠겨보았다.

“싸리비는 쌓이고 쌓여 하늘 끝까지 잇닿고…… 讀書週間에 싸리비 3,000자루는 20자루씩 한묶음이 되어 어린학생들 등에 얹혀 其行列이 서울驛에서 市廳廣場에 連하고 珍奇한 모습인양 바라보는 市民들과 學生들은 싸리비와 책을 바꾸자는 우리의 絶叫를 同情하리라고.”

오늘 蒐集된 싸리비는 前週의 몇갑절 많았다.

學級代表들이 잔디위에 다소곳이 둘러앉아 주고받는 이야기는 이슬이 나리어 후죽주레한 옷으로 돌아갈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主要議題는 싸리비 모으기에 具體 方案樹立인듯 싶었다.

讀書週間은 10月20일부터 10月26일까지로 定하여졌음으로 蒐集目標 3,000자루는 19日限으로서는 時日이 促迫하였다. 10月15일에 모여진 數量은 目標量의 5分の1에 不過한 600자루였으니 失望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차라리 이와같은 計劃을 樹立치 않았던것만 같지 못하였으리라는 後悔도 있었던것이다. 翌日인 16日 午後부터는 떠엄 떠엄 學生들이 지게며, 밀방에다 힘에 겨웁도록 싸리비 자루가 모여들기 始作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15日의 學級代表들의 論議가 奏効한듯하다.

어느 自願指導教師는 매지 못한채로 가져온 싸리비를 다듬어 빗자루 매기에 손이 부푸렸고 學生代表 몇사람은 쌓아놓은

집채같은 싸리비를 잃을까 두려워 宿直까지 해가면서 그들은 못내 하고야 말겠다는 初志를 貫徹시켰다.

#### ◇郡圖書館의 設立過程◇

1961年 讀書週間 첫날인 10月 20日 韓國日報 朝刊紙엔 특記事化되었고 10月 25日엔 라디오로 크게 報道된바 있어 社會 各界로부터는 빗발치는 讚辭와 優良圖書의 寄贈이 물밀듯이 모여졌다. 서울特別市市長 尹泰日將軍, 서울特別市 教育監, 朴賢植大領을 爲始하여 某會社社長 徐氏를 비롯한 醫師, 有志, 學生들에 이르기까지 僻村 福祉學園에 傳하여 달라는 冊은 5,000卷을 넘어섰다.

當初의 計劃이 實現된 이 感激은 自願指導教師나 學生들에겐 限없는 기쁨이었으며 이朗報는 郡民에게 적지않은 反影을 招來하였다.

“正義는 勝利한다” 그리고 “至誠이런 感天한다”는 본 보기를 實現하였기에 우리의 하는일에 半信半疑 또는 色眼視하던 人士들이 積極的으로 後援하기에 앞장을 서서 郡圖書館 建物로는 教育區廳舍를 占하고 施設備品은 有志들의 贊助金으로 마련하여 1961年 12月 21日 坡州圖書館은 開館式을 가졌다.

1962年 6月 26日엔 空軍中央圖書館과의 姊妹結緣을 通하여 精神的 뒷받침으로 圖書館의 基礎는 確立되어갔다.

國立圖書館과 姊妹圖書館으로부터 長期間의 巡廻文庫 圖書配定은 優良圖書의 擴充을 뒷받침하여 주었다.

#### ◇現況과 業務◇

圖書館으로서 具備해야만 할 3大條件이

있다면 첫째는 圖書의 確保이며 둘째는 閱覽室, 그리고 셋째가 圖書의 分類라고 한다면 條件具備에 完全을 期하기엔 아직 未洽한 點이 많으나 郡單位 圖書館으로서의 體制는 갖추었다고 自負한다.

現況을 摘記하여 본다면

收藏圖書數量 8,342卷

閱覽方式은 半開架式

分類狀況은 未整理中이나 K.D.C 十進分類法에 따르고(後日 D.D.C로 變更豫定임) 있다.

建物狀態는 閱覽室 2 (成人室, 學生室)

事務室 1로 되어 있다.

都合坪數는 80坪임.

1962年 1年間の 閱覽者 集計는 아래와 같다.

閱覽延人員數 8,968名

成人 2,043 男 1,936

女 107

學生 6,625 男 5,143

女 1,782

圖書貸出數 延 18,043卷

館內貸出 延 11,024

一般人貸出 673

마을문고 3,677

館外貸出 7,019

아동문고 1,700

복지문고 845

교양문고 124

從事員

館長 1人 (無報酬)

司書 1人 (有報酬)

閱覽補助員 3人 (無報酬)

閱覽日

國慶日은 公休日로 하고 特殊事情이 有하면 臨時休館키로하고 繼

續開館한다.

閱覽時間

午前9시부터 午後5시까지

午後6시부터 午後10시까지로함

閱覽料

有料로 閱覽토록하고 있으며 晝間 2원, 夜間 3원으로 하고 있다.

圖書館運營狀況

1962年 1年間은 非豫算으로 有志贊助金에 依하여 維持하여왔으나 1963年度부터는 郡立圖書館으로 移管하여 年間豫算額 286,530원을 配定받고 運營하기에 이르렀다.

其他

圖書館 主管의 各種行事

1. 巡廻文庫의 實施

가. 마을문고 17個(農村巡廻)

나. 아동문고 10個(國民校巡廻)

다. 복지문고 4個(福祉學園巡廻)

라. 교양문고 1個(警察署收監者)

2. 讀書會 育成

會員 30名으로 構成된 讀書會는 月2回의 定期的會合을 召集 學術討論, 音樂鑑賞 및 圖書館 發展을 爲한 協助機關으로 育成시키고 있다.

3. 어린이 文學講座實施

每週日曜日 2時間에 걸쳐서 國民校 4年以上者의 公開 글짓기, 詩짓기 其他 文學에 對한 素質을 育成시킴.

4. 白日場 行事實施

每年 讀書週間에는 白日場을 實施한다(1962年 第1回實施).

◇우리의 計劃과 方向◇

앞으로의 計劃이란 年中行事로 定하여  
진 4個行事의 忠實한 實踐은 勿論이려니  
와 今年度 豫算配定額中 10萬원의 新刊圖  
書購入費에 따른 優良圖書의 擴充과 圖書  
分類의 再編이 內容面의 充實을 期하는  
面에서 重要な 計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地域社會의 文化中軸役割을 使命  
으로하는 圖書館의 方向이 또한 소홀히  
다를 問題가 아니라고 느낌으로 우리는  
巡廻文庫制度의 徹底한 施行과 巡廻文庫  
單位의 小單位 讀書그룹을 育成指導코저

한다. 自然部落 單位에 마을文庫가 마련  
되고 圖書館 구실은 文庫函이 擔當하며  
管理人役割은 讀書그룹會員이 맡겠음 할  
것이다.

郡圖書館의 位置는 郡內 마을文庫의 母  
格으로 애기 圖書館을 指導育成하는 責任  
을 負하고 애기 圖書館間의 緊密한 連結  
과 調和를 圖謀함으로써 均衡된 地域社會  
文化向上을 이루워 가기를 計劃하면서 우  
리의 方向은 指路를 따라 踴躍을 期한  
것이다. <筆州者·坡州圖書館長>

## 圖書館用語集

— 解 說 附 —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編

서 울

社團 韓 國 圖 書 館 協 會  
法 人

1962

(限 定 版)

(購入申請順에 따라 發賣)

값 300원